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25~3.3]

1 경제일반

1. 도쿄에서 지방으로의 외국인 전출이 전입을 초과

- 총무성의 2018년 인구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유학생의 일본취업이 증가하는 한편 방일 여행객 증가로 지방 서비스 업계가 외국인 채용을 확대함에 따라, 도쿄도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외국인 수가 지방에서 도쿄도로 이동한 외국인 수를 2년 연속 초과함.
- 2018년 기준 총 3만 7,011명의 외국인이 도쿄로 전입한 한편, 3만 9,941명이 전출하여 전출이 전입을 초과

<2018년 도쿄에서의 전입수가 전출수를 초과한 주요 자치단체> (출처: 총무성)

도현	전입초과수	도쿄→지방 전입	지방→도쿄 전출
사이타마현	3,577	11,546	7,969
가나가와현	1,170	8,570	7,400
지바현	582	7,204	6,622
군마현	189	839	650
시가현	85	211	126
홋카이도	66	604	538
미에현	43	228	185

- 특정 분야 취업에 유리한 전문학교 유학생 증가도 그 요인 중 하나로,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적은 지방소재 전문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짐.
- 또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외국인 주민 유치 활동에 적극적인 곳이 많음.

※ 일례로 미에현의 경우 자녀가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을 위한 일본어 교재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2018년 228명의 외국인이 도쿄에서 전입

2. 경단련 회원사, 2020년 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 활동 시작

- 일본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은 회원사에 대해 설명회, 면접 등 홍보 및 채용 활동을 시작하도록 허가함.
 - 외국계 기업이나 신생 기업 등 일부 비회원 기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월 1일이 채용 활동 시작일이나, 이미 면접 과정이 끝났거나 내정(內定)을 받은 학생도 있음.
 - 필기시험과 면접 등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고 답변한 학생은 전체의 39.9%이며, 채용 시험에 응시한 학생 중 약 70%가 인턴으로 참여했던 기업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고 답변
 - ※ 한 취업정보업체에 따르면 2020년 졸업한 학생들의 2월 1일 현재의 내정율은 8.1%로, 전년 동월 대비 3.5포인트 상승
 - 경단련은 회원 기업에게 인턴과 채용 과정을 직결시키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인턴에 참여한 학생이 다른 기업의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존재함.
- 지난해 9월 경단련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이 기업의 채용 활동 시작 시기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취업규칙 재검토 논의가 진행되어 2020년 졸업예정자 대상 채용을 마지막으로 경단련은 취업규칙을 폐지할 예정임.
 - 2021년 졸업예정자부터는 일본 정부가 취업 규칙을 주도하여 관리할 것이며, 정부는 채용활동 시작시기 등을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임.
 - 그러나 신입사원에 대한 수요가 커 기업간 인재확보 경쟁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취업 규칙을 관리한다고 해도 취업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3. 일본 정부의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안)

□ 일본 정부의 수소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안)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이 밝혀짐.

-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국가보조 대상을 현행 대도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토록 검토해, 도요타, 파나소닉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3월말까지 정식 결정 예정
- 현재 100여곳인 수소 충전소를 2020년도까지 160곳, 2025년도까지 320곳으로 확대하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면서, 무인화를 통해 영업시간 확대와 인건비 감축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따라서 향후 운영자의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임.

<수소 이용확대 관련 일본정부 계획 요지>

구 분	주요 내용
수소충전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수소충전소 무인화 운영 • 편의점 병설 확대 • 국가 보조대상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 2020년도까지 160곳, 2025년도까지 320곳 정비
연료전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 SUV, 미니밴 등의 신차종 투입 • 2020년까지 4만대, 2025년까지 20만대, 2030년까지 80만대 보급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에서 제조한 수소를 선수촌 에너지로 이용 • 오사카 세계박람회에서 일본의 첨단기술 및 수소의 매력을 국내외에 홍보

□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더해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어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코자 하나, 생산 및 관리 비용은 과제가 될 것임.

- 금번 계획안은 채산성 향상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띄이나, 현재까지 연료전지차의 보급률은 여전히 낮아, 향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4. 세계 각국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조짐

□ 과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금유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실시하면서 세계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

※ 美 달러스 연방준비은행이 1월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주요 23개국 주택가격은 2018.9월 말 전년대비 3.9% 상승하여 약 3년 만에 상승률이 최저수준을 기록.

- **(호주)** 호주 정부가 2017년 은행에 주택대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도록 요청하고 중국 정부가 자본유출규제를 실시해 투자자금이 감소하면서, 2018년 1사분기까지 6년 가까이 지속 상승하던 주택가격지수가 동년 3사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9% 하락함.
- **(미국)** 미국은 2015.12월 금리인상을 재개해 주택대출금리가 2018.11월에 7년 8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함. 대표적인 주택가격지수인 S&P 코어로직 C/S 지수는 2018.11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됨.
- **(일본)**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일본 수도권 분양 맨션의 평균가격은 5,871만 엔으로 전년대비 0.6% 하락함.

※ 美 조사업체인 EPFR에 따르면, 2018년 세계 부동산 투자금액은 106억 2,600만 달러 감소했으며, 부동산 서비스 업체인 JLL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쿄 및 뉴욕 등지의 우량 오피스 빌딩 투자 수익률은 연 2~3%대(2018.12월)로, 역대 최저수준임.

□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나,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부담을 늘리고, 자산가치 하락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가간 주택가격 연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각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세계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5. 각국 장기금리 하락

□ 유럽 및 중국의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면서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국채에 투자자금이 집중되어 세계 각국에서 금리가 하락하고 있음.

※ 2.22 일본, 미국, 유럽의 장기금리가 모두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한 때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며 금년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함. 독일은 경제지표 악화가 금리하락의 요인이 되 어, 독일 금리는 2월 상승 일시적으로 0.1%대 이하로 내려감.

□ 각국 금리 하락의 최대 요인으로는 기업의 체감경기가 세계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IHS 마크잇이 산출하는 세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월 50.7로, 약 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함. 특히 유로권의 동 지수는 2월 49.2로, 약 5년 반만에 불황 진입의 기준점인 "50"을 하회함.

○ 유럽권에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 및 영국의 EU 탈퇴에 대한 경계심 고조로 기업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음.

○ 미국은 경제 호조로 금리 상승압력이 있어 왔으나, 장기금리는 작년 11월 3% 이하로 하락했으며, 10년물 국채이자자가 2년물 국채를 하회하는 불황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또한 중국은 과잉 부채 및 설비 문제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경기 둔화가 뚜렷해졌고 이에 더해 미중 무역마찰이 가중된 상황

○ 일본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해 온 對中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생산이 감소

□ 또한, 시장에서는 경기 및 시장 상황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 다만, 일본은행 및 유럽중앙은행의 금리는 이미 낮은 수준이며 신홍국 금리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완화책을 펼쳐도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6. 인터넷쇼핑물 업체 일제조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물 업체의 포인트 환원 관련 아마존재팬 등 기업을 일제조사할 방침임. 포인트 환원을 위한 재원이 외부 판매자 부담이 되는 방식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함.

□ 금번 조사는 아마존, 라쿠텐, 야후 등 일본국내에서 인터넷상 판매의 플랫폼을 기업에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함. 동 조사는 ‘플랫폼머’라고 불리우는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1월 시작한 대규모 실태조사의 일환임.

○ 아마존은 5월 하순부터 전상품을 대상으로 구입액의 1% 이상을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0일, 환원 재원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매자에게 동 제도에 대해 통지한 바 있음.

○ 거대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막대한 데이터 및 고객 수를 무기로 중소기업 판매자에 대해 과도한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거래해제를 통보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받아 옴.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인트 환원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쇼핑몰과 판매자간 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나, 판매자는 쇼핑몰과 비밀준수의무계약을 맺고 있어 답변이 한정적일 가능성이 있음.

- 위원회는 이를 감안하여 ‘개별 위반행위 의혹이 없어도 법률의 적절한 운용 및 정책입안을 위해 사업자활동 및 경제실태를 강제적으로 조사 가능하다’는 독점금지법 40조 발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 세코 경제산업대신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의 높은 전자상거래 의존도를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계약변경으로 판매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일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함.

3 대외경제 동향

7. 일-ASEAN, 3월 EPA 개정의정서 서명 예정

□ 2.26 일본 정부는 일-ASEAN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정의정서 서명 방침을 각의결정 함.

※ ASEAN 회원10개국 내 일본계 기업 거점수는 2017년 시점 약 1만 2,500개로 5년 간 70% 증가

- **(개정 내용)** △투자 및 서비스 자유화 추가, △ 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ISDS) 신설 등
 - **(향후 일정)** (일본) 3.27 서명하여 올 가을 임시국회 승인 예정/ (ASEAN 회원국 10개국) 3.2부터 순차 서명하여 국내절차를 완료한 국가부터 新협정 발효
 - **(기대 효과)** △(미얀마*) 건설, 교육, 통신서비스, 금융, 항공·해상운송 등에서 새롭게 외자유제 완화, △(라오스) 기기 임대업 등 자유화, △(필리핀) ISDS 조항 최초 적용 예정
- * 현재 미얀마에서 규제가 적은 국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자 출자비율이 35% 이내여야 하나, 新협정 발효로 외자 출자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됨.
- 개도국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신청이 일방적으로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나, 新협정에서는 거부이유 공개 의무규정을 신설한 바, 행정 투명성 향상도 기대

[참고] 일-ASEAN EPA 협상 경위

2005.4월 협상 개시(이후, 11회 협상회의 개최)

2007.11월 일-ASEAN 정상회담에서 상품무역 관련 협상타결을 확인.

2008.12월 순차 발효(이후, 합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2010.10월 투자 및 서비스 분야 관련 협상 개시

2015.11월 일-ASEAN 정상회담에서 서비스 협상 종료를 확인

2016.9월 일-ASEAN 정상회담에서 투자 협상 종료를 확인

/끝/